사계절 양잔디의 환상적인 골프장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함평 다이너스티 컨트리 클럽
탄력적인 그린피 시스템 운영
인터넷회원 예약시
평일 최대 3만원, 주말 최대 5만원까지 할인가능
예약 : www.hpdynasty.co.kr 061)320-7700,7714

보성중 이한송 3관왕 '번쩍'

남중부 94kg급 인상·용상·합계 '금'

충남 박세리 포환던지기 초등 한국新

역도 3관왕을 차지한 보성중학교의 이한송이 1일 광주시 정광고 체육관에서 열린 제37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역도 남중부 94kg급 용상에서 136kg을 들어올리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

중학생 역사(力士) 이한송(보성중 3년)이 역도에서 3관왕에 오르며 제37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전남의 중반 상승무드를 주도했으나 광주는 금메달 3개를 추가하는데 그쳐 목표달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한송은 1일 광주 정광고등학교에서 열린 대회 2일째 역도 남중부 94kg급 인상 111kg,용상136kg, 합계247kg을 들어올려 3개의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전남은 또 인라인롤러에서 강태욱(나주초 6년)이 300mT·R과 3천m포인트에서 금메달을 따 2관왕에 올랐으며 이영승(곡성중 1년)은 볼링 여중 2인조전에서 지난달 31일 개인전에 이어 금메달을 추가해 역시 2관왕에 오르는 등 금메달 12개를 따냈다.

광주는 김태원(일동초 6년)이 태권도 남초 라이트급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박찬민(광주체육중 3년)은 유도 남중 61kg급이하에서 금빛 메치기에 성공했다.

서석중은 남중 검도 단체전 결승에서 최강 인천선발을 제압하고 9년만에 금메달을 획득해 부진한 광주선수단에 낭보를 전했다.

기대했던 레슬링에서는 남중부 박상혁(광주체육중 3년), 송형진(광주체육중 3년), 조우주(광주체육중 3년)가 모두 은메달에 머물러 아쉬움을 남겼다.

단체전에서는 야구 초등 수창초가 전북 군산 신풍초를 10-9로 제압하고 3회전에 올랐으며 배구 여초부 치평초도 강원 옥천초를 2-0으로 꺾고 금메달을 향한 순항을 계속했다.

하지만 광주는 이날 경기가 종료된 육상에서 단 한 개의 금메달을 따내지 못하는 부진을 보여 기초종목 육성이라는 숙제를 남겼다.

전남은 이날 역도 3관왕 외에 금이 쏟아졌다.

태권도에서는 고호재(순천북초 6년)·고혁재(순천북초 6년)쌍둥이가 각각 웰터급과 라이트미들급에서 금빛 발차기를 성공시켜 화제를 모았으며 남승우(금성중 3년)는 사이클 남중 500m독주에서 우승, 지난달 31일에 이어 역시 2관왕에 올랐다.

또 고강석(관산초 6년)과 이건(관산초 5년)은 씨름 초등부 역사급과 장사급에서 역시 금을 따냈으며 김세훈(함평중 3년)은 레슬링 중등부 그레꼬로만형 63kg급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기대를 모았던 육상 황재훈(목포서부초 6년)과 박소희(광양제철초 6년), 주효진(전남체육중 3년)이 각각 200m,멀리뛰기, 높이뛰기에서 은메달에 머물러 아쉬움을 남겼다.

메달집계 결과 광주는 금 7개, 은 6개, 동 15개, 전남은 금 19개, 은 13개, 동 22개를 기록하고 있다.

한편 박세리(12·충남 반양초 6)는 지난달 31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육상 여자 초등부 포환던지기에서 17m37을 던져 금메달을 따내며 이 부문 초등부 한국기록을 새로 썼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역도 이한송 ■ 히어로 검도 서석중

입문 1년만에 대기록…"국가대표가 꿈"

"운동 시작한지 1년만에 이런 큰 영광을 안게돼 감독·코치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1일 광주 정광고등학교에서 열린 역도 남중부 94kg급 인상 111kg,용상 136kg, 합계 247kg을 들어올려 3관왕에 오른 이한송(보성중 3년)은 3관왕의 영광을 스승에게 돌렸다.

광양동초등학교를 거쳐 동광양중학교에 재학중이던 이 군은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역도선수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다만 학교에서 운동을 잘하는 학생정도였다.

하지만 보성중 송종천 코치가 이 군의 가능성을 보고 2학년 때 보성중으로 전학을 시켜 역도에 입문하게 됐다.

이 군은 역도 입문 몇개월이 되지 않은 올 춘계대회에서 대회신기록을 작성하며 대회 3관왕에 올라 일찌감치 제37회 소년체전 94kg급 3관왕 후보로 꼽혔다.

타고난 정신력과 함께 성실한 이 군은 열심히 운동해 태극마크를 다는 것이 꿈이다.

정순승 보성중 역도 감독은 "한송이가 워낙 성실하고 운동을 열심히 해 순발력만 보완한다면 훌륭한 선수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혼합팀 아닌 단일팀…9년만에 우승

최강 광주검도 만세!

광주검도가 서석중학교의 제37회 소년체전 제패로 전무후무한 전국최강의 위업을 달성했다.

이번대회 동메달을 기대했던 서석중은 예선에서 강호 전북선발을 2-1로 제압하고 8강에서 충남선발을 3-1, 준결승에서 부산선발 3-1, 결승에서 최강 인천선발을 2-1로 꺾고 9년만에 감격의 우승을 차지했다. 특히 서석중은 이번대회 출전 16개팀중 2개 학교 이상의 우수선수로 구성된 선발팀이 아닌 단일팀으로 출전해 우승하는 기염을

토했다.

이로써 광주검도는 지난해 제88회 전국체육대회에서 고등부, 대학부, 일반부 종합우승에 이어 중등부까지 전국을 제패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전국최강의 실력을 전국에 알렸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사이클 남승우(금성중) '父傳子傳' 볼링 이영승(곡성중)▶

"아빠가 코치"…금메달 보답

제37회 전국소년체전에서 아버지의 조련으로 금메달리스트가 탄생해 화제다.

전남 사이클 남승우(나주 금성중 3년)군은 아버지 남백수 금성중 사이클 감독의 지도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볼링 곡성중 이영승(곡성중 1년)양 역시 아버지인 이성민 곡성중 볼링코치에게 훈련을 받아 정상에 올랐다.

남승우군은 1일 나주사이클경기장에서 열린 사이클 남중 500m독주에서 금메달을 거머쥐어 지난달 31일 200m에 이어 2관왕에 올랐다.

남백수 감독은 남승우 군이 우승하기까지 든든한 버팀목이 됐다. 남 감독은 지난 1975년~1980년까지 정구 국가대표를 지낸 정통 체육인. 1986년 금성중에 체육교사로 부임하면서 지난 2004년부터 사이클 감독을 맡고 있다.

남승우군은 광주 남구 진월초등학교 6학년 때 아버지를 따라 나주 사이클 경기장을 찾은 후 스스로 사이클선수가 되겠다고 해 금성중학교로 전학을 왔다.

아버지의 운동신경을 이어받은 남 군은 올 대통령배 200m·500m에서 2관왕을 차지하며 최우수선수상을 수상하는 등 대기만성형의 기대주로 각광받고 있다.

이영승양도 부전 여전이다. 이번 소년체전 개인전과 2인조에서 2관왕에 오른 이양은 나주초등학교 6학년 때 볼링공을 처음 잡은 늦깎이지만 아버지의 운동신경을 이어받아 1년 만에 대통령배 등 3개 대회에서 우승 하는 등 뛰어난 실력을 뽐내고 있다.

특히 이성민코치는 지난해 2월 말 나주에서 볼링장을 운영하다 곡성으로 이사해 지난해 11월 자신이 지도하던 딸 이영승양과 김유미(곡성중 2년)양을 주축으로 팀을 창단해 소년체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거는 쾌거를 이뤘다. 이 코치는 곡성중에서 급여는 고사하고 사재를 털어 선수들을 조련, 금메달을 따내는 데 기여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김하늘 시즌 2승

KLPGA 서경오픈 우승

김하늘(20·코오롱)이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힐스테이트 서경오픈에서 역전승을 거두며 시즌 두번째 우승을 차지했다.

김하늘은 1일 경기도 용인 레이크사이드 골프장 동코스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날 3라운드에서 안선주(21·하이마트)와 치열한 경쟁 끝에 3언더파 69타를 쳐 최종합계 5언더파 211타로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안선주는 18번홀(파4)에서 보기를 범하는 바람에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4언더파 212타로 2위에 그쳤다.

챔피언조에 편성된 안선주보다 한 조 앞에서 경기한 김하늘은 안선주에 1타 뒤진 채 18번홀에 들어 선 뒤 7m짜리 버디 퍼트를 성공시키며 동타를 만들어 연장전을 준비하고 있었다.

17번홀에서 그린 가장자리에서 퍼터로 굴린 공을 그대로 홀에 집어넣어 버디를 잡은 안선주는 최소한 연장전을 할 수 있는 다소 편안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안선주는 18번홀에서 티샷을 페어웨이 벙커 빠뜨리며 세번 만에 그린 위에 볼을 올린 뒤 1.5m를 남기고 파퍼트를 했지만 볼은 홀을 훑고 나오고 말았다.

타이틀 방어에 나섰던 신지애(20·하이마트)는 전반에 이글 1개, 버디 2개, 보기 1개로 3타 줄이며 선두를 추격했지만 후반에 보기 2개, 버디 2개를 맞바꿔 타수를 줄이지 못해 3언더파 213타로 공동 3위에 올랐다. 시즌 상금 2억9천만원이 된 신지애는 1위를 지켰다.

1일 담양군 담양읍 학동리 담양다이너스티CC에서 열린 그랜드 오픈 행사에서 박준영 전남지사, 허재호 대주그룹 회장 등 참석자들이 축하 테이프를 자르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담양다이너스티CC 그랜드 오픈

천년 유럽 왕가의 명예로운 품격을 느끼며 라운드를 즐길 수 있는 소수정예, 최고 품격의 담양다이너스티CC가 1일 그랜드 오픈 행사를 갖고 정상영업에 들어갔다.

담양군 담양읍 학동리 산 79번지 일원에 18홀(파72·6천384m)로 조성된 담양다이너스티CC는 이날 오전 10시 공식 개장행사를 가졌다.

식전행사로 신데렐라 난타 연주단의 공연과 한국무용이 펼쳐졌으며 박준영 전남지사, 허재호 대주그룹 회장, 황길순 담양 다이너스티 회장, 차성만 담양 다이너스티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테이프 커팅 행사가 열렸다.

이어 이정섭 담양군수와 클럽하우스 설계자 안드레이 비세고, 마쓰모 비고니에게는 감사패가 수여됐다.

담양다이너스티CC는 천혜의 자연경관을 살린 차별화된 코스와 최고급 시설을 자랑한다.

더욱이 전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눈 사람 형태코스'(실제는 페어웨이가 시원스럽게 펼쳐져 있지만 티잉그라운드에서는 좁게 보여 부담감을 줌으로써 묘미를 더해주는 코스)가 조성된 것도 담양다이너스티CC만의 매력이다.

이와 함께 광주는 물론 타지역에서 접근성이 뛰어난 것도 골퍼들의 관심을 끌고 있으며 전국 최대 규모, 최고급 설비를 자랑하는 클럽하우스는 영국 왕실의 성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모습으로 골프뿐만 아니라 광주·전남의 새로운 '사교클럽의 장'으로서 각광받을 전망이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윤다훈·김승우 등 인기 연예인도 참석

○…담양다이너스티CC 그랜드 오픈 행사에는 윤다훈, 이동건, 김승우 등 인기 연예인 축하단이 참석, 축하메시지를 전했다.

윤다훈은 "왕실을 연상시키는 클럽하우스와 푸른 양잔디로 조성된 페어웨이 등 이렇게 훌륭한 골프장 개장행사에 참석하게 돼 영광이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날 개막식 행사 후 라운딩을 하며 담양다이너스티CC의 코스에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골프 치면 5년 더 산다"

英 데일리 메일 신문 보도

"6~7㎞ 걷기 건강에 좋아"

골퍼들이 골프를 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평균 5년 정도 더 장수를 누린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영국 데일리 메일 신문이 지난 31일 보도했다.

스웨덴 카롤린스카 연구소의 연구진은 30만명의 골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 결과 골프를 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일정 시점에 사망할 가능성이 40%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이것은 평균 5년 더 오래 사는 것과 맞먹는다고 연구진은 말했다.

이 연구에서 핸디캡으로 따져 최고의 플레이어들이 가장 건강한 사람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의 골퍼는 같은 연령의 골프를 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 일정 시점에서 사망할 확률이 47% 더 낮았다.

연구진은 골프가 육체적으로 격렬한 운동은 아니지만, 18홀 한 라운드가 보통 4마일(약 6.4㎞) 이상 걷기를 수반하는 건강에 좋은 운동이라고 말했다. 이 연구를 이끈 카롤린스카 연구소의 안더스 아봄 교수는 "한 라운드의 골프는 필드에서 6~7㎞의 거리를 빠른 속도로 걸으며 4~5시간 있다는 것을 뜻한다"며 걷기는 이미 건강에 좋은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